

취재요청서

- 일시 : 2005년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
- 제목 : 천주교신자 고동주, 평화운동가 오정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
- 문의 :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corights@jinbo.net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책임활동가) /

첨부문서 : 병역거부자 오정록, 고동주 병역거부 이유서

천주교신자 고동주, 평화운동가 오정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1.

한국 사회의 인권 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한국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1,186명(단일 사안으로 최대의 수감자, 2005년 9월 15일)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결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오는 19일,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두 명의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에 관한 정책 권고를 내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문회를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고동주, 오정록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선언하는 자리에, 언론단체의 취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천주교신자 고동주, 평화운동가 오정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1. 고동주, 오정록 병역거부 이유서 발표
2. 천주교인사 지지발언
3. 평화단체 지지발언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4. 인권단체 지지성명 -인권단체 연석회의 김덕진
5.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이재승 (국민대학교 법대)

- 일시 : 2005년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제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이상 35개 단체)

[첨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정록 병역거부 이유서

일상적인 유무형의 폭력이 만연한 곳,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곳, 따라서 오직 번호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곳,
생명까지 내맡긴 채, 철저한 위계와 폭압적 권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
여성에 대한 비하, 성적 대상화가 만연한 남성들의 공간,
구체적 인간 개개인이 아닌 집단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곳,
모든 시간이 오직 전투력 강화, 즉 살인기술의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쓰이는 곳,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곳,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스스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곳,
그 결과, 인류 역사에서 있어왔던 수많은 전쟁(살인)의 행위자가 되는 곳..

저는 군대를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꽤나 극단적이군.”
“가보지도 않은 군대에 대해서 안좋은 소리만 들었군.”
“그 곳도 사람사는 곳인데...”
“저래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나.”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 근처도 가보지 않았고, 사회와 군대는 꽤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민감하고 여린 사람들도 군대를 다녀온 것을 보면 군대가 사람 잡는 곳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사회의 폭력성, 남성중심성, 권위-위계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제 나름의 생활방식을 만들어가고 사회적 불평등, 폭력에 저항할 수 있지만, 군대는 둘 중 하나입니다. 거부할 것인지, 적응할 것인지. 적응하는 것, 익숙해지는 것은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고된 육체 활동으로 생각은 점점 적어지고, 군대의 살인훈련에 몸은 익숙해지는 것, 선임병이 되어 후임병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것, 중국에는 전투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고 집단의 부속품처럼 살인의 행위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군대에 적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대의 폭력과 문화가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어떤 짓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착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폭력 때문에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보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영영장보다 병역거부를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를 선언한 저를 국가는 병역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두고 저의 양심을 교정하려하겠지만, 저는 군대를 거부한 저의 양심을 꺾듯이 지킬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1만 명 이상의 병역거부

+

+

자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양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이단종교라고 매도하고 저와 같은 사람을 사회부적응자라고 비난하겠지만 군대가 존재하는 한,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비록 병역거부자들 한 명, 한 명의 힘은 미약하지만 제 목소리에 공감하고 군대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40년 전 베트남 파병군인은 멧쟁이 군인이었겠지만, 2005년 자이툰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남자라면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누구나 꺼려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2005년 10월 4일

오정록
1979년 1월 21일생
평화운동가
前 평화네트워크 간사

+

+

[첨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동주 병역거부 이유서

안녕하세요, 저는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자 하는 고동주입니다. 저는 천주교신자로서 대학에 입학해서 가톨릭학생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공부했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내야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할 때 진정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대상에 제한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가장 최악의 결과는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십시오. 저에게 군대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집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것이고, 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보다 더 강성함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군비경쟁이 멈추질 않고, 무기생산과 수입에 쓰이는 예산이 늘어나는 대신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복지에 쓰일 예산은 줄어듭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간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대에서 받을 훈련을 상상해봅니다. 적으로 상정되는 인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총칼로 찌르고,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는 훈련을 받게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버리게 된다면 저의 삶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군대에 들어갈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제 2장 4절에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올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겠지요. 또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의 사목헌장에서 전쟁의 야만성 방지에 대한 79항에는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달리 인간다운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오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고자 군대에 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

+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아직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 60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1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합헌결정과 유죄선고를 내리면서 소수의견으로 입법부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양심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감옥에서 그들의 시간을 허비시키는 것도 국가적 낭비입니다. 민간대체복무를 통하여 저도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11일

고동주

1980년 8월 9일생

천주교신자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

오정록, 고동주의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연대성명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는 그 상황이 알려진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1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국가에 의해 구금당할 정도로,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현안 중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민주화했지만, 유독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국가안보논리에 의해 병역기피로 낙인찍히며 지난 50년 동안 유예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2001년 이후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병역거부문제가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으로 각인되고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또한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지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오늘 또다시 두 명의 젊은이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법의 잣대에 의해 제단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다른 그 어떤 잣대도 아닌 인권의 잣대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정부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신속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미 한국 정부는 2004년 3월에 열린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병역거부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가 각 나라 사정에 맞는 민간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 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논의의 한 주체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동의한 결의안과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예에 착수하라.

병역거부가 인권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2004년 서울 남부지원에서는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이어졌고,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조차 결정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때가 되었다”는 권고를 잊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병역법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인권의 잣대를 가지고 병역법 개정예에 착수해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병역거부자들이 비록 현행법에서는 범법자일지 모르나, 병역기피나 국가안보의 논리를 들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자유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속영장발부의 전제가 되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오정록씨와 고동주 씨에게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두 젊은이 모두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까지 스스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이미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오태양, 김도형, 임성환 씨의 경우에도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기하기를 바라며, 오정록씨와 고동주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킬 것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1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5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 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가협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의 문제연구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체복무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01년 초, 우리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동안 강고한 국가안보의 그늘 아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가 그것이다. 60여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전과자를 양산하고도 단 한 차례도 시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홍역을 치르듯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 씨의 병역거부 선언과 유호근, 나동혁, 강철민 씨 등 평화운동가, 대학생들의 잇따른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 문제는 비단 특정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병역거부가 이렇게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면서 사법계에서는 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2004년 5월 서울남부지원의 무죄선고, 그 해 7월과 8월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이어졌고 이로써 사법적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결정문에 포함시킴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단순히 실정법상의 해석에 따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해 9월과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오늘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다.

오늘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정록, 고동주 씨는 평화운동가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들의 양심과 신념에 관한 오랜 성찰 끝에 힘든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400여명대로 줄어들었던 병역거부 수감자의 수도 9월 15일 현재 1,18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 해 700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을 멈추기 위해선 입법부의 시급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징병제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 한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는 아주 훌륭하고, 게다가 수십 년간의 검증을 거친 지혜로운 제도라 할 것이다. 사회 공동체를 위한 대체복무 역시 국가안보를 위한 의무임을 확신하며 이제는 사회가 이들의 몸짓에 화답해야 할 때이다.

+

+

2005. 10. 1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
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
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
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정록·고동주 씨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오정록·고동주 씨는 각각 입영예정일인 10월 4일과 11일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이들은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평화주의자로서, 천주교신자로서 입영과 징집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비록 자신들은 실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지만 당당히 그 길을 가겠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징병제도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소박한 희망을 드러내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오정록·고동주 씨의 병역거부 결심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오정록·고동주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다.

첫째, 연대회의는 구속영장발부의 기본전제가 되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오정록·고동주 씨에게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오정록·고동주 씨 본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실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주거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우려하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오정록·고동주 씨에 대해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동일한 혐의에 근거한 다른 병역거부 피의자와의 법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정록·고동주 씨와 동일한 사유에 의해 군 입대를 거부하여 재판을 받은 오태양, 김도형, 임성환 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근거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현재 각각 충주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또한 현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및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여 작년 9월에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및 10명의 국회의원들이 11월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 형 집행이 중지되어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오정록·고동주 씨는 다른 병역법위반 사범이나 병역비리 혐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군입영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오정록·고동주 씨의 신념이 존중받고,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병역거부권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양심과 신념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

이에 연대회의는 오정록·고동주 씨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법원의 진지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 1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 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 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

+